



서구의 심리치료<sup>1)</sup>가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적 상담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쟁점(issue)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이동식은 동양인으로서 주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서양의 정신치료는 우리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도(道)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것이라고 하였으며 서양의 정신치료가 상담은 앞으로 결국 도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Rhi, 1995). 최근에는 더욱 활발히 여러 각도에서 한국문화에 적합한 상담이 연구되고 있는데, 동양적 상담이론의 모색(이장호, 김정희, 1989), 한국인의 심리 특성연구에 역점을 두어 한국인의 심리에 맞는 심정주의 상담(최상진, 2000), ‘한국인 이해의 개념 틀’에 관한 연구(조공호, 2003) 등이 한국적 상담을 개발하는데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또한, 윤호균(1982)에 의하면 불교에서 진아를 발견함으로써 고통의 뿌리를 타파한다는 주장을 하여 동양에서의 정신치료가 상담 목표는 증상제거 차원을 넘어 실존불안도 제거할 수 있는 차원이 월등한 것이라고 역설하였고, 이영희(1997, 2004)는 서양에서의 문화 지향적 접근이 타민족이나 다른 소수의 인종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데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동일 문화권의 동일 민족이기 때문에 다양한 하위 문화권들 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으로 문화 지향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장성숙(2003)은 현실역동 상담유형을 한국적인 접근으로 모색하고, 유동수(2007)는 감수성 훈련을 중점으로 한국적 상담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들이 현재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고 한국적 상담 모형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있지

만 아직 많은 상담자들에게 대중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상담의 기본 이론들 중에서 한국적 상담 모형을 구축하는데 적합한 이론은 무엇일까?’의 궁금증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 문화의 특성 중 인본주의 문화에 초점을 두어 한국의 인본주의 문화와 인본주의 상담의 연계성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Corey에 의하면 지금까지 개발된 상담의 기술과 방법을 세 가지 범주인 정신역동적(예, 정신분석 등), 인본주의적(예, 내담자-중심, 형태 상담 등), 행동지향적인 행동 요법(예, 행동주의 상담, 현실요법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조현춘, 조현재 역, 1996). 이 중에서 인본주의 상담은 상담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론이며, 많은 상담자들이 이 이론이 표방하고 있는 인간의 긍정성에 매료되곤 한다. 한국의 심리치료자들을 다른 국가 치료자들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서구의 다른 심리치료자들에 비해 한국의 심리치료자들이 상담 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이론들 중에서 심리상담자의 경우에는 58%, 상담자의 경우에는 73.8%가 인본주의를 주요 이론으로 하여 상담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은선, Bae & Orlinsky, 2003). 또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는 한국 심리치료자들의 주요 변인 중에는 인본주의를 주요 이론으로 선택하여 상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Joo & Yoo, 2006). 왜 한국의 심리치료자들은 인본주의 상담을 선호하고 이들은 어떻게 이 이론을 상담에 적용하고 있을까? 과연 인본주의 상담이 한국의 내담자와 문화에 좀 더 적합한 상담이론일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등의 경전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하나라는 사상으로서 우리 민족의 뿌

1) 본 논문에서는 ‘심리치료’와 ‘상담’을 동일한 의미로 병행하여 사용함.

리 깊은 원형적 사고방식을 대변하고 있다. 하늘은 인간의 지성으로서 상호교감이 될 수 있는 대상이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친화력을 지닌 존재였고 가장 한국적인 보편사상인 '하늘이 곧 인간이요, 인간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人乃天)사상을 낳았다. 즉, 한국인의 민족원형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이처럼 하나 되는 천지인합일(天地人合一)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나와 남의 구별이 없어지는 자타일여(自他一如)사상과 조상과 후손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생사일여(生死一如)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신토불이(身土不二)라 하여 사는 땅과 사람이 둘이 아니라는 독특한 삶의 철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지극히 자연적인 삶을 살았고, 한국적인 민족원형은 모두가 하나로 통합되는 일체의식과 평등의식인 한 사상으로 정립할 수 있다(최동환, 2004).

#### 인본주의와 인본주의상담

심리학에서 제 3의 세력으로 불리는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단편적 형태로 연구하고 이해될 수 없으며 그보다는 인간이 타인과 세계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해 관련해서 연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Rogers, May, Maslow, Bugental 등은 인간은 독특한 능력 즉, 사랑, 자유, 선택, 창조성, 목적 관계, 의미 가치, 성장, 자아실현, 책임 능력, 자아 초월, 유머, 자발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능력을 보아야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Maslow는 인간은 이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라고 보았다(Maslow, 1970). 위와 같은 인간관을 바탕으로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사회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인간은 그가 속한 사회로부터 분

리될 수 없기에 인간관계에 큰 비중을 둔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Ellis, 1973; Rowan, 1988).

인본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인본주의 상담에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사회화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실현을 해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 건설적이고 협조적이며 믿음성이 있는 존재로 보고 본능적 방어 욕구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인간은 긍정적이고 전진적이며 건설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어떠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행동에서 심리적 적용의 행동으로 옮겨가려는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적절한 상황이 마련되기만 하면 자신을 인도하고 통제하고 조정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상황이 결여 되었을 때만 외부의 통제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본주의 상담의 대표적인 상담은 인간중심 상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1930-194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Carl Rogers, 1902-1987)의 상담이론에 근거하여 발전된 상담의 한 접근 방법이다. 로저스는 그 당시 상담의 주된 세력이었던 정신분석학과 지시적 상담의 입장에 반대하고 비지시적인 상담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상담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로저스 학파의 기본 전제는 완전히 자유주의, 인본주의적 사상과 일치하고 인간은 비지시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개척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상이다. 그러나 인간이 부적응하고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이유는 적절한 성장환경이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본다. 적절한 성장환경은 상담 장면에서 치료자가 제공해야하는데 그 어떠한 상담이론 보다도 인간중심 상담은 치료적 관

계와 치료자의 자질을 강조 한다(Rogers, 1961, 1980).

로저스는 오랫동안 심리치료와 상담 경험을 통해 자기실현을 돕는 관계의 세 가지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로 이는 상담자가 ‘나’ 이기를 멈추고 내담자의 속에 들어가서 내담자의 세계를 보는 것인데, 내담자의 귀와 눈을 가지고 내담자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담자가 권위자로서 내담자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 같이 함께하는 자세이다. 이때 내담자는 ‘나는 참으로 이해되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상담자가 무언가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 내담자는 스스로 걷기 시작한다는 것이다(조명내, 1976). 두 번째는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unconditional positive regard)인데 이는 내담자가 진실로 그 자신일 것을 용납하고 내담자 자신이 되도록 돌보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무한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스스로 성장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확신 속에 상담자와 내담자는 너와 나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내담자는 자신을 확신하게 되며 스스로 성장에로의 결단을 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Kirschenbaum & Henderson, 1989). 세 번째는 일치성(congruence)인데, 이는 내담자가 자기를 정직하게 직면하려면 상담자 스스로가 솔직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 상담자가 솔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연스러울 때 내담자는 서서히 자신을 직면하게 되고 방어하고 체면치레를 할 필요가 없어지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된다(Rogers, 1961, 1980).

## 한국문화와 인본주의

한국의 인본주의 문화는 고대 경전에서부터 유교, 불교, 동학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 경전을 우선 살펴보면 참전계경은 배달국의 한웅천황이 재세이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개국할 때에 사용한 경전이다. 참전계경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인간이 살아가야하는 정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은 바로 재세이화하고 홍익인간이 되는 것이며 성통 광명하여 인간이 죽은 후에는 창조주의 세계(천궁)에 들어가 창조주와 함께 하는 영생을 누리는 길이다. 특히, 홍익인간은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의 두 이념이 조화 있게 내포된 것으로 규정하는데,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는 의미의 홍익인간의 이념이 곧 인간중심 사상이며 ‘홍익인간’이야말로 가장 인본사상을 담고 있는 전통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임한영, 1999).

유교사상은 우리의 생활철학으로 굳어 한국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교사상의 핵심적인 개념은 인(仁)이며 인의 함양이 곧 인간의 자아실현으로 규정한다. 유교사상에서 말하는 인은 자기를 극복하고 예를 행하는데 있다(克己復禮爲仁). 이 경우의 극기는 단순히 개인의 사리와 사욕을 극복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자기 수양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Tu, 1979). 인의 개념은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한 인간의 자발적 노력을 함의하고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인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이것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길이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적절한

행동 규범을 의미하며 복례는 이들 규범에 단 순히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참여를 의 미한다고 한다. 예는 타인을 전제하고 있는데 예를 지키며 산다는 것은 사리사욕을 억제하 고, 세상과 고립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 과 관계를 맺으며 도덕적 생활을 실천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가장 우리 민족에게 사상적 영향을 끼쳤던 학문으로서 유교의 기본경전인 삼강오륜(三綱;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 五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부유별(夫婦有別), 붕우유신(朋友有信), 장유유서(長幼有序)) 은 동 단위 인간관계의 윤리를 동 단위 관계 의 형태(부자, 군신, 부부, 붕우, 장유 등)에 따 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교의 일차적 관 심은 동 단위 인간관계 윤리를 규정하는 것이 었으며, 인간의 기본적 본성을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단(四端)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실현 하는 정도에 성숙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두 고 있다.

불교에서는 특히 현상학적인 인간관을 꼽는 데, 불안과 갈등 또는 불만을 촉발하는 유기 체적 경험들은 현상학적으로 경험되거나 표현 될 때에 흔히 억압, 억제, 변형되어 유기체적 경험과 현상학적 경험 사이에 괴리가 생겨나 고 환경 또는 대상과의 소통이 부적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와 부적절한 소통 이 수많은 괴로움 즉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 불안과 긴장, 비행, 기타 각종 병리적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 남은 무명에서 벗어나 본원적인 자성을 깨닫 는 것이다. 깨달음을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 일상생활과 수행에서 망념의 지배를 벗어나 성품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자신과 세계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는 심신의 상태와 작용을

아무런 선입견, 감정, 욕망 등을 개입시키지 않고 무상하고 무아한 것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를 권하고 있다.

그 밖에 동학의 경우 반만년에 달하는 우리 민족의 주요 사상을 함축해 놓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인간존엄에 기초한 교육으로서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동학의 바탕이 되는 인내천 사상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모시고 있는 ‘한울님을 깨달으면 곧 한울님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사상의 본질은 한울 마음 이 곧 사람 마음이라고 하여 인간중심 사상을 고취시키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학식, 기술, 지위, 계급 등을 떠난 인간 그 자체에 대한 한울님과 같은 존엄성을 의미 한다(이강일, 1992).

이렇게 우리민족 사상의 주류는 인본주의라 고 할 수 있다. 고대 경전에 나타난 인본주의 나 유교에 나타난 인본주의는 각각의 핵심사 상으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고대부터 내려 온 인내천 사상이나 유교의 인간관이 능동적, 주체적, 기능체, 그리고 사회적 관계체로 인간 을 여겨왔던 만큼 우리민족 사상은 인본주의 에 뿌리내려왔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인본주의상담에서 강조하는 인간은 기본 적으로 합리적이고 사회화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실현을 해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 건설적이고 협조적이며 믿음성이 있는 존재로 보고 본능적 방어 욕구 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인간은 긍정적이고 전진적이며 건설적으로 행동한다는 것과 일치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인본주의를 주요 이론으로 상담을 하는 전문 경력 상담자들의 자기 보고를 통한 질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적 인본주의 상담 모형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요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들은 인본주의 상담을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적용의 어려움에 대해 파악하여 한국형 인본주의 상담 모형을 만드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본주의 상담 중 인간중심 상담을 주요 이론으로 하여 상담을 하는 한국 상담자들은 인본주의를 어떻게 적용 하고 있는가?

둘째, 이들은 인본주의 이론(예, 로저스의 인간중심이론)을 적용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여기는가?

## 방 법

## 대상

본 연구는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중 인본주의를 주요이론으로 하여 상담을 하는 상담경력 15년 이상 상담자들 중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 선정은 학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명단을 통해 첫 번째 저자와 두 번째 저자가 전화 연락을 취하여 인본주의 이론을 주요 이론(예, 로저스의 내담자-중심이론)으로 택하여 상담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이 끝난 후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 방법(Jennings & Skovholt, 1999) 을 택해 대상자에게 인본주의를 주요이론으로 상담을 하는 다른 상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는 남자상담자 4명과 여자상담자 8명으로

표 1. 연구 대상자 특성\*

| 사례번호 | 성별 | 연령 | 경력 | 주당 상담시간 | 상담 외 활동             |
|------|----|----|----|---------|---------------------|
| 1    | 남  | 50 | 15 | 10      | 상담기관의 장, 기관 운영      |
| 2    | 여  | 51 | 15 | 16      | 상담기관 운영, 상담교육 제공    |
| 3    | 여  | 52 | 25 | 18      | 상담 기관 운영, 청소년대상봉사활동 |
| 4    | 여  | 49 | 15 | 16      | 대학 강사               |
| 5    | 여  | 47 | 16 | 8       | 대학 겸임교수             |
| 6    | 남  | 51 | 20 | 10      | 상담기관의 장, 기관 운영      |
| 7    | 여  | 68 | 20 | 11      | 전 대학교수로서 강의, 저술활동 등 |
| 8    | 남  | 70 | 33 | 5       | 전 대학교수로서 강의, 저술활동 등 |
| 9    | 여  | 55 | 18 | 14      | 상담기관 공동 운영          |
| 10   | 여  | 54 | 16 | 20      | 상담기관 공동 운영          |
| 11   | 여  | 60 | 20 | 10      | 대학 교수               |
| 12   | 남  | 67 | 24 | 7       | 전 대학교수로서 강의, 저술활동 등 |

\* snowball sampling 이므로 추천을 근거로 한 면접 순서로 제시

총 12명이며 이들의 평균 나이는 56세이고 평균 상담 경력은 20년이었다. 이들은 현재 상담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고 주로 상담하는 내담자는 성인(20-64세)이고 사례 #2와 #3은 성인은 물론 어린이(12세까지)와 청소년(13-19세) 내담자들도 보고 있다고 하였다. 대상자들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인본주의 상담을 주요이론으로 상담을 하는 상담자들의 보고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기에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와 이해를 획득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인 면접을 활용하였다.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응답자가 그의 느낌과 믿음을 자세히 표현하거나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비체계적인 개인면접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방식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답변 중에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질문을 해 나가며 신뢰도를 높였다. 질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인본주의를 주요 이론으로 하여 상담을 하는 한국 상담자들은 인본주의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둘째, 인본주의 이론을 적용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여기는가?의 내용으로 반구조화된 질문기법을 사용하였다.

면접은 첫 번째 저자의 지도 감독 하에 상담과 면접 기술을 훈련받은 두 번째 저자가 2006년 3월에서 5월에 걸쳐 연구대상자를 전화로 연락을 하여 연구 취지와 참여 동의, 면

접시간과 장소 등을 이야기 하였다. 좋은 면접을 위해 참여자가 가능한 한 긴장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이용숙, 김영천, 1999), 약속 장소와 시간은 대상자가 가장 편리하도록 배려하여 시간은 주로 연구대상자들이 상담이 끝난 후나 상담과 상담 사이에 약 50분에서 80분가량 진행되었고, 면접 장소는 주로 상담근무지에서 이루어졌다.

#### 자료 수집

자료는 대상자의 동의 하에 면접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여 수집하였다. 인본주의 이론을 어떻게 상담에 적용시키는지, 적용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이를 극복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만나 심층면접하고 모든 내용을 녹음 하였다.

####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한 전사(transcription)시에는 개별적으로 심층면접 하여 대화한 내용들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느낌이나 생각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근거이론으로 유명한 Glasser와 Strauss(1967)에 의해 지지된 방법인 귀납적 접근을 적용하여 자료가 수집될 때까지 어떠한 자료도 미리 약호화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료에 근거하여 약호화와 주제의 이름을 개발하고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상자 12명의 개별 면접은 녹음하여 모든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자료를 읽으면서 텍스트(text)의 특정한 부분이 어떤 특정한 주제나 쟁점(issue)을 언급할 때는 연구문제나 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특정 부분을 잘 설명해주는 주제

(theme)로 이름을 부여하였다. 주제별 약호화 과정에서 추출된 문단은 859개 이며, 주제의 의미와 생성작업을 통하여 6개의 주제를 얻었으며 이 주제는 크게 강화할 부분, 어려움 요인의 두개 영역으로 묶을 수 있었다. 주제별 사례는 주요사건분석(key incident analysis)의 일환으로(Ericsson & Simon, 1984) 강화할 부분 영역에서 52개, 어려움 요인에서 34개에서(총 86개)의 사건이 추출되었고, 이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며 결과가 의미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내용을 엄선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타당도 작업을 위해 질적 분석과 해석에 관한 동료 연구자의 조인과 지적(peer debriefing)에는 첫 번째 저자와 세 번째 저자가 참여하여 원자료가 정확한 영역에 존재하는지, 그 영역의 모든 중요한 자료가 발췌되었는지, 중심개념을 말로 표현한 것이 간결하고 원자료를 반영하는지를 검토하여 연구자들이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2006년 6월 중에 총 5번의 회의를 통한 논의에 의해 합의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 면접은 '반구조화된 면접'으로 면접자가 질문 내용을 미리 외워 놓고 '비구조화된 면접'처럼 대화 형식의 면접을 진행하였으며(이용숙, 김영천, 1999), 다만 이와 같은 면접 기법에 있어서 면접자는 특히 중립성, 공정성, 자연스러움, 일상회화의 분위기 조성, 친절, 진지함이 필요하였다.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이 방법의 장점은 질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해야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연구자는 먼저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말과 연구에 참여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면접

자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면접에 임해줄 것과 이야기를 녹음해도 좋은지 동의를 구하였다. 대상자들은 쾌히 허락을 하였으며 대부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다. 대상자 중 한 명은 면접이 후반부로 넘어갈 즈음에 급한 일로 자리를 떠나 했기에 후반부의 면접은 택시 안에서 이루어졌다. 면접을 하기 전 면접자는 교재나 이름만 들어보았던 유명한 상담자들을 직접 만나보게 되니까 긴장이 되고 떨리는 경험을 했지만 대상자들은 아직 대학원생인 면접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해주기 위하여 친절하고 자상하게 면접에 임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시간에 쫓기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일단 면접이 시작되면 주저함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면접자가 면접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은 점은 연구대상자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는 공통적인 요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이 연구대상자 집단이 매우 동질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인본주의 그 중에서 특히 로저스의 인간중심을 주요 이론으로 상담을 하는 전문 경력 상담자들의 자기 보고를 통해 한국적 인본주의 상담 모형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결과에 대한 설명은 '첫째, 인본주의를 주요 이론으로 상담을 하는 한국 상담자들은 인본주의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둘째, 이들은 인본주의 이론을 적용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여기는가?'의 연구문제에 근거하여 그 특정 부분을 잘

설명해주는 주제들을 나누고 분석한 결과 인본주의를 주요 이론으로 상담하는 전문 상담자들의 공통적인 보고 내용을 6개의 주제로 추출해 낼 수 있었고 이는 2개의 영역으로 묶을 수 있었다. 이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면접전사 내용을 부분적으로 이용하여 결과를 설명하고자한다.

**영역 1. 한국 문화와의 적합성**

연구 대상자들은 인본주의 상담이 감정을 강조하는 한국문화에서 관계를 중시여기고 또한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점을 한국문화와의 적합성으로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공감과 관계, 조화는 인본주의 상담 자체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잘 부합이 되어 자신들이 상담을 할 때에 이러한 점을 살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한국형 공감’을 개발한다든가, 개인 자체보다는 관계 속에서의 개인(self-in-relation), 더 나아가서 공동체와 사회 전반에 대한 조화와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인본주의 상담을 강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주제 1. 공감 문화**

연구자들의 대부분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문화는 ‘정서’ 중심이고 돌고 도는 순환의 개념을 갖고 있기에 인지적으로 따지면서 분석하듯이 상담을 하는 것은 경험상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상담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왕성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형 언어패턴의 분석이라든가 등을 동원하여 상담자 교육을 통해 한국적

공감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우리문화 특성과 인본주의 상담이 어느 면에서 잘 맞는가하면 우리문화가 굉장히 감정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정’ 이런거.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상담도 감정을 다룬다는 면에서 잘 맞는다고 봐요. 우리문화가 ‘사고’보다는 ‘정’ 이걸 중요시하는 문화고, 인본주의 상담도 감정을 다룬다는 면에선 잘 맞는다고 봐요. (사례 #11)

한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심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언어적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에서의 공감훈련을 꽤 오랫동안 했었고, 지금 상담자들한테는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정확한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부분을 열심히 하는 편이죠. 존중과 공감적 이해를 하고, 저 자신이 힘들 것은 없고....그러다보니 칼 로저스가 제시한 세 가지 자세나 기법들을 저는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담자 스스로가 본인이 이 우주의 존귀한 존재라고 깨닫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례 #1)

한 상담자는 로저스에 관한 에피소드를 공개하였다. 그가 대학시절 때 중국으로 선교활동에 하러 갈 때, 일본을 거쳐 한국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부산에서부터 걸어가지고 만주까지 가서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잘 알고, 그 자신이 동양사상에 굉장히 심취되어있기에 그의 이론이 우리에게서 낯설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공감만 주어져도 거

의 절반 이상의 상담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한국적 공감에 바탕을 둔 한국적 상담을 한다고 말하지만 한국적 상담 안에 로저스보다 더 '로저스'스러움이 한국 안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만약 그것을 세계적 추세로 놓는다면 로저리 안에 가깝겠지만 저희 연구소 안에서는 주로 한국적 상담이라는 얘기를 하지요. (사례 #4)

### 주제 2. 관계의 강조

한국인의 자아는 의미가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 맥락적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실재를 구성하는 '관계적-상황 맥락적 자아'로서 의미가 크다. 인본주의 상담을 자칫 잘못하면 개인 그 자체의 선택과 자유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인본주의 인간관에 근거하여 인간의 사회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인간은 그가 속한 사회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에 인간관계에 큰 비중을 둔다. 대상자들은 개인 상담을 하더라도 특히 가족 내에서 부부간과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고려한 상담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서양 사람들은 부부 사이라도 다를 건 다르고 1:1 이잖아요. 우리는 넘나드는 사이이고..그래서 관계 안에서의 조화를 고려한 상담이 되어야 해요. 서양보다는 관계를 중시하는 상담을 합니다. (사례 #5)

자칫 내담자가 내놓는 감정에 '공감한다' 라고 하고 잘못 맞장구를 치게 되면, 내담자와 관련된 다른 사람, 그게 어머니 아버지일 수 있고, 그러다보면 '공경하지 않는 상담이 될 수도 있다'는...그걸 고려

해야하지요. (사례 #3)

### 주제 3. 조화의 중요성

대상자들의 다수는 도리와 이치를 중요시 여기고 이를 충분히 고려한 상담을 강조하였다. 확연하게 드러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닌, 어떠한 선택의 결과로 인한 전체적인 파장 효과까지를 고려한 조화를 바탕으로 한 상담을 지향하고 있다. 개인의 선택이 아무리 옳아도 조화를 깨는 선택이라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의 자녀 교육은 아주 다른데, 예를 들어 형제가 둘이 싸우고 부모에게 쫓아오면 서양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옳은 아이는 상을 틀린 아이는 벌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애가 와서 동생에게 뭐라고 하면 부모는 형으로써 동생을 잘 감싸줘라 라고 가르치고, 또 작은 애에게는 '동생으로서 형 말을 잘 들어라'고 말하지 누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는 조화를 존중하는 인본주의예요. (사례 #2)

유교라는 것 때문에 윤리라는 것, 그리고 도덕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겉으론 편안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결코 편안하지 않아요. 말로 표현하는 것과 태도와는 차이가 있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 끝에 남아있는 남존여비 사상이라든지, 자기가 안 좋다고 느끼면서도 끝끝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땐 한국 문화적인 걸로 이해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한 공감이 되어야지 그냥 서양식 인본주의만으로 얘기하면 쉽지 않죠. (사례 #5)

인본주의 상담자일수록 너무 개인주의적인 관점만으로 상담할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고, 사회라는 것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로저스를 그렇게 강조 안 한 사람입니다마는, 자기 가족, 자기 소속하고 있는 사회나 기관이나 직장,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보다 평화롭게, 인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대한 주의를 의도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사례 #7)

## 영역 2. 적용의 어려움과 대처방안

대상자들은 인본주의 상담을 하려면 무엇보다 상담자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무리 내담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으려면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람이 상담한다면 앞에 앉아만 있어도 치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특히 초보상담자들에게는 마치 뜬 구름 잡는 듯한 뚜렷한 상담 기법과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상담자 훈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특히 한 상담자는 로저스가 강조하는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은 이해하기 어렵고, 왜곡하기가 쉽기에 ‘조건적 인간적 수용’이라는 것으로 수정해서 활용한다고 하였다.

## 주제 1. 뚜렷한 상담 기법의 부재와 수정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특히 상담자와 상담기법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한국은 상담 분위기나 기법만이 따라다니는 현상이 있어서, 로저스 책을 보면 기법을 안 가르쳐주니까 상담자들의 불안을 유발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상담자 불안이라고 볼 수 있고 단지 초보 상담자들을 위해서 좀 더 뚜렷한 상담기법이라든지, 약간의 수정을 통한 체계적인 인본주의 상담 훈련이 필요할 것이라 하였다.

많은 분들이 로저스 이론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 실제로 ‘내가 로저스 이론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 이렇다 할 것을 제시해주는 건 없으면서...이런 점이 특히 상담을 배우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버거워서 그럴 수도 있죠. 이거해서 내가 언제 상담하나, 뭔가 어떤 꼭 도구를 쓰고, 기법을 써야 치료가 되지 않을까...오히려 상담자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사례 #10)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은 제가 다소 로저스 교수하고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요.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해하기 쉬운, 무조건적인 말에 사람들이 오도될 수 있기에....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건적이고, 유관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내담자의 수준과 감각, 또 상담자의 경우에 따라서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잘못하면 상담관계를 본의 아니게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건적 인간적 수용’이라는 말을 저는 더 적절한 표현으로 생

각하고 있습니다....좀 수정주의라고 볼 수 있지요. (사례 #8)

### 주제 2. 슈퍼비전(supervision)과 자기상담의 필요성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오랜 상담 경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한다든지, 슈퍼비전이나 자기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말 상담자로서 충분히 성숙하고 충분히 기능하는 상담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아마 처음 시작할 땐 대부분 인본주의를 좋아하면서도, 나중에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당신 인본주의자냐 라고 물으면 다들 한걸음씩 뒤로 물러서서 “아, 난 아직 그 정도가 못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 그걸 거예요. 인격적 성숙이나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서의 상담자가 된다는 것이 쉽질 않거든요. (사례 #6)

저는 아직까지도 슈퍼비전을 받고 제 상담을 받고 그래요. 그래야지 인본주의에서 강조하는 공감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많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사례 #5)

일단 제 감수성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현재 내 상태를 알아야 솔직해지니까. 개인상담을 제가 받고, 감수성 훈련에 참가하고, 집단상담에 참가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사례 #10)

### 주제 3. 지시적인 한국 문화 고려

많은 대상자들이 내담자들의 의존적인 특

성, 상담자가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한국의 상담문화에 대해 지적하였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인본주의 상담은 상담자가 지나치게 수동적이기 쉬운데 한국문화에 적용할 시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이끄는 인본주의 상담자상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시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시를 했을 때는 잘 따라와요.....집쟁이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에 깃들어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훈육해주고 지시해주고 앞을 내다보고 얘기해주었을 때 더 쾌감을 느끼고 또 시원한 맛을 느끼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이런 지시문화도 바르게 발전되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9)

필요성을 느끼지 않더라도 상담자가 교육적으로 다서 이끌어가는,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면에서는 공동체의식이라든가, 인간관계를 보다 평화롭게, 인격 존중하는 그런 방향의 감각이나 행동을 갖도록 상담자가 이끌어주는, 지도를 하는 그런 상담자가 훌륭한 상담자고, 바람직한 상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 #12)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인본주의를 주요 이론으로 상담을 하는 전문 경력 상담자들의 자기 보고를 통해 한국적 인본주의 상담 모형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결과에 대한 설명은 ‘첫째, 인본주의를 주요 이론으로

상담을 하는 한국 상담자들은 인본주의를 어떻게 적용 하고 있는가? 둘째, 이들은 인본주의 이론을 적용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여기는가?의 연구문제에 근거하여 그 특정 부분을 잘 설명해주는 주제들을 나누고 분석한 결과 인본주의를 주요 이론으로 상담하는 전문 상담자들의 공통적인 보고 내용을 6개의 주제로 추출해 낼 수 있었고 이는 2개의 영역으로 묶을 수 있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인본주의 상담이 감정을 강조하는 한국문화에서 관계를 중시여기고 또한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점을 한국문화와의 적합성으로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공감과 인간관계, 조화는 특히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잘 부합이 되어 인본주의 상담을 실천할 때 이러한 점을 살리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부단한 연구를 통해 ‘한국형 공감’을 개발하는 것 등이고, 개인의 문제를 개인의 것으로 보지 않고 관계 속에서의 개인(self-in-relation), 더 나아가서 공동체와 사회 전반에 대한 조화와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인본주의 상담을 강화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상담자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내담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으려면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한다고 하였다. 이들 스스로가 오랜 상담 경력에도 불구하고 슈퍼비전을 받고 자기 상담을 받는 것을 보고한 점은 인상적이었다. 인본주의 상담 교육에 있어서 초보상담자들에게는 뚜렷한 상담 기법과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한 상담자는 로저스가 강조하는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을 ‘조건적 인간적 수용’이라는 것

으로 수정해서 활용하는 유연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인본주의 상담의 모색을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점인 1) 한국적 공감 개발, 2) 도리와 윤리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강조, 3) 부단히 자기-수련하는 교육자로서의 상담자로 논의 할 수 있겠다.

첫째, 한국적 공감 개발은 한국의 인본주의와 특히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의 공통분모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정서적 문화가 다분히 깔려있고 인본주의 상담, 특히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의 핵심적 치료요인은 공감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가까운 사람을 일상에서의 상담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상담에 대해 전문가적 능력을 많이 갖추었기 때문이 이라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데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자신이 상담을 통해서 얻거나 기대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도움보다 자신의 마음에 맺혀있는 자신의 심정을 상대가 이해, 공감해 줌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이나 가치를 인정받고 또한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데 있다.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한국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의 하나는 한국의 문화를 ‘푸는 문화’로 규정짓는다. 푸는 문화로 보는 데는 마음의 맺힘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 중의 하나인 한(限)이 맺힌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한은 ‘해결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부당한 피해를 자신의 무능으로 인해 남으로부터 받게 될 때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감정과 심정의 경험이다(최상진, 1991; 1997)’라고 말한다. 분석적 공감보다는 한에 근거한 풀 수 있는 공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오영희, 1995). 또한 한 연구회에서는 한국형 공감을 개발하고 있

는데 이의 기본은 감수성 훈련에 있다(유동수, 2007; 한울, 2004). 감수성 훈련은 첫째, 심리치료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성(personality) 자질과 둘째, 치유적 공감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두는 집단훈련과정으로 집단구성원들의 역동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표현하며, 다양한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공감하고 수용과 직면하는 과정을 통한다. 상담자로서의 민감성 개발, 상담자로서 자신의 맹점(blind spot)에 대한 자각,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 집단 원과의 만남을 통하여 치유적 언어를 사용하도록 훈련함으로써 상담자로서의 자질과 기술들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인본주의 상담을 한국에 적용할 때에 도리와 윤리에 근거한 인간관계의 강조는 한국은 뿌리 깊게 인간관계의 강한 결속력으로 맺어져 있고 이것이 한국인의 인지·정서·행동 면에도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양의 정신분석, 행동, 인본주의 이론들이 인간의 개인 내적인 요소에 거의 모든 관심을 두는 반면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하는 도리나 윤리에는 소홀한 편이다. 서양의 전통적인 상담에서는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화하거나, 자아를 강화시키거나, 학습의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내거나, 개인의 독립 및 통합을 일궈 내거나, 자기 패배적 사고를 최소화시키는 것들에 주력한다. 따지고 보면 거의 개인적인 인지·정서·행동에 중점을 둔 반면 주변의 환경인 인간관계에는 눈을 돌리지 못했다. 이러한 서구의 자아(self)와는 달리 아시아권의 자아는 자기에게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 맥락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실체를 구성하는 ‘관계적-상황 맥락적 자아’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Markus & Kitayama, 1991). 특히 한국적 자아의 특징은 사람간의 관계, 마음, 맥락으로 요약이 되는데 이와 같은 관계, 마음, 맥락 속에서 자기 적응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개인과 주변의 인간관계 둘다 중요시하여 그 둘의 상호작용으로 상담의 시너지효과를 노려볼 만하다(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의 경우 유교에 근거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우리의 심리특성을 미덕으로 인정하여 인간상호관계에 가치를 두고 상담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내담자가 아버지와의 갈등을 겪는 문제를 안고 상담자를 찾아왔다면 서구의 경우 내담자의 갈등을 푸는데 주력할 것이지만 한국에서의 경우, 내담자의 갈등을 충분히 공감해주며 동시에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갈등을 다루어주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이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내담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상담자는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담자 변인인데 인본주의 상담을 한국 상황에서 대중에게 다가가는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자칫 잘못하면 인본주의 상담은 상담자의 수동적인 면이 부각되기 쉽고 내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점을 찾는 자가 치료자(self therapist)가 목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이상적인 것만을 요구하기 보다는 내담자가 직접적인 안내를 더 선호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25만 명으로 추정되는 점복인이 있으며 점복인을 찾는 사람도 10명 중 4명 꼴이나 되고, 1994년 한국 갤럽의 보고에 의하면 직접 돈을 내고 점을 본 사람은 전체 인구의 38.3%, 최

근 일년 동안 직접 돈을 내고 점을 본 사람은 전체 인구의 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 때문인지 최근에는 제도권 대학에서 조차 동양학 대학원 명리학과가 신설되어 점복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박효순, 2002; 조규문, 2002). 이러한 현상의 한 면으로는 점복자가 문복자를 대하는 태도를 눈여겨 볼 수 있는데 점복자는 문복자에게 그것이 맞는 것이든 틀린 것이든 어떤 처방이나 방안을 마련해 주는데,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변형하여 상담자가 어느 정도 이끌어주어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 이는 서구권에 비해 한국의 상담관계는 내담자가 마치 선생님과 같은 상담자 상을 원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기도 한다(Joo & Orlinsky, 1994). 사실 많은 인간중심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또는 대등한 관계라는 인식 아래, 내담자에게 명료화 내지는 반영만을 주로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담자는 오히려 우왕좌왕하며 실망하여 떠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진정한 인간중심 상담을 실행한다면 내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명료한 파악이 있어야 하겠고 이를 제공할 상담자의 능력이 요구된다고 볼 있다.

상담현장에서 많은 상담자들이 한국인의 심리특성에 맞는 상담 모색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유동수, 2007; 이장호, 김정희, 1989; 장성숙, 2003 등). 인본주의를 기본철학으로 하며 한국인의 심정이해를 바탕으로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담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한다면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론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본주의 상담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 (주은선, Bae & Orlinsky, 2003), 인간중심상담이

감정이입과 공감에 역점을 두면서, 한국인의 심리특성인 강한 인간관계의 결속력을 살린 한국형 상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우리의 사상과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서양의 상담에서와 같은 심리치료에 해당되는 면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무관심하게 버려둘 것이 아니라 한국형 상담을 개발하는데 적극 검토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추후연구를 위하여 이러한 작업을 개인의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이론의 정립과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학회나 주요 상담기관, 연구원 등과 같은 곳에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방향을 주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박효순 (2002). 교통사고 일진의 명리학적 분석: 자동차 사고의 실재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영희 (1995). 용서를 통한 한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70-94.
- 윤호균 (1982). 정신분석, 인간중심의 상담 및 불교의 비교: 인간 및 심리적 문제에 관한 견해, 한국심리학회: 임상 및 상담심리분과, 임상심리학 회보, 3.
- \_\_\_\_\_ (1999). 불교의 연기론과 상담, 동양심리학-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 서울: 지식산업사.
- 이강일 (1992). 동학의 인본주의 교육 사상, 청주교원대학교 석사 논문.
- 이영희 (1997). 심리-사회적 갈등과 인간중심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 6(1), 1-17.
- \_\_\_\_\_ (2004). 상담이론의 철학적 조망, 숙명여  
자대학교 출판부.
- 이용숙, 김영천 (1999).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이장호, 김정희 (1989). 동양적 상담이론 모형  
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  
료, 2(1), 5-15.
- 유동수 (2007). 감수성 훈련(2판). 서울: 학지사.
- 임한영 (1999). 한국교육이 기대하는 인간상, 한  
국교육학회: 교육학 연구, 7(1), 501-521.
- 장성숙 (2003). 한국문화와 현실역동 상담의  
상담자-내담자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  
담과 심리치료, 15(2), 147-160.
- 조규문 (2002). 선진유학사상에서 도출되는 심리  
학의 문제, 동양심리학-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서울: 지식산업사.
- 조궁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  
남출판사.
- 조명내 (1976). 로저스 인간관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춘, 조현재 역 (1996). 심리상담 치료의 이론  
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주은선, Bae, S. & Orlinsky, D. E. (2003). 한국심  
리치료자들의 특성과 실무현황. 한국심리  
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5(3), 423-439.
- 최동환 (2004). 삼일신고. 서울: 지혜의 나무.
- 최상진 (1991).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  
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339-350
- \_\_\_\_\_ (1997). 한국인의 심리특성. 서울: 학문사.
- \_\_\_\_\_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  
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  
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8(1), 1-16.
- 한알 (2004). 감수성 훈련의 실제. 서울: 한알연  
구소.
- Ellis, A. (1973). *Humanistic psychotherapy*. New  
York: The Julian Press.
- Ericsson, K. A. & Simon, H. A. (1984). *Protocol  
analysis: Verbal reports as data*. Cambridge,  
MA: MIT Press.
- Glas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 Jennings, L. & Skovholt, T. M. (1999). The  
cognitive, emotion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master therap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1), 3-11.
- Joo, E. & Orlinsky, D. E. (1994). The  
psychotherapeutic relationship in different  
cultures. *Psychotherapy East and West:  
Proceedings of the 1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therapy*, revised edition, Seoul: Korean  
Academy of Psychotherapists; 70-79.
- Joo, E. & Yoo, N. (2006).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of psychotherapis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 (3), 651-672
- Kirschenbaum, H. & Henderson, V. L. (1989). *The  
Carl Rogers reader*. Boston: Houghton Mifflin  
Press.
- Markus, H. R. & S. Kitayama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  
224-253.
- Maslow, A. 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Rhi, D. S. (1995). The Tao and Western

- psychotherapy, *Psychotherapy East and West: Proceedings of the 1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therapy*, revised edition, Seoul: Korean Academy of Psychotherapists; 146-156.
- Rogers, C.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Press.
- \_\_\_\_\_ (1980). *A way of being*. Boston: Houghton Mifflin Press.
- Rowan, J. (1988). *Humanistic psychology in action*. London: Routledge.
- Tu, W. (1979). *Humanity and self-cultivation: Essay in Confucian thought*, Berkeley: Asian Humanities Press.
- 원 고 접 수 일 : 2007. 6. 15  
수정원고접수일 : 2007. 8. 1  
게 재 결 정 일 : 2007. 8. 7

## **An Investigation of Korean Humanistic Counseling Model - Based on the self-report of experienced humanistic counselors in Korea -**

**Eunsun Joo**

**Haekyung Lee**

**Eunjee Joo**

Duksung Women's University

Hose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Korean humanistic counseling model in Korea.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 of 12 experienced humanistic counselors who have licences issued by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y Association, semi-structured questions based on two research questions, "How do you apply humanistic counseling theory when you practice in Korea?", and "What are the difficulties and coping strategies when you apply humanistic counseling theory in Korea?" were asked. Results suggest that in the applicability of Korean culture domain, themes such as empathic culture, emphasizing relationship, the importance of harmony were drawn. In the difficulty and coping domain, lack of counseling skills, the need of supervision and self-counseling, directiveness of Korean culture were retrieved.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the investigation of Korean humanistic counseling model will be discussed.

*Key words* : *Humanistic Counseling, Korean Counseling, Qualitative study*